

# 신원식 정무부지사, 임실시장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맞아 화재 취약 목구조·전통시장 현장 방문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임실군을 방문, 임실시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목구조로 돼있는 임실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전달 4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북 영덕 공설시장 화재와 유사한 사례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건축물과 밀집구조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하며, 그동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사전에 조치되지 않아 발생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임실군을 방문, 임실시장을 점검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견딜 수 없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영덕 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만 하더라도 전체상이 78곳 모두가 새가 땅게 타면서 추석 대목을 위해 준비한 지역 특산물이 모두 재투성으로 변한 바 있다.

특히, 임실시장은 목구조로 돼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곳보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원식 부지사가 유

관부서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신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임실시장 현황 및 시·군에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어, 건축과 전기, 소방 등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상가를 방문해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목구조로

되어있는 상가를 방문해 점검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전통시장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김승환 교육감, 6급이하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김승환 교육감이 6급이하 지방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이 함께하는 '지방공무원 소통·공감데이'를 군산에 위치한 인문학고 교정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6급이하 공무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참여·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전북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정책과 현장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도내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중 참여를 희망한 지방공무원과 노조대표 등이 함께 했다.

행사는 전북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특강,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연,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감토크는 키워드 질문과 스티커 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대입제도 개선 방안, 환경교육의 필요성, 학교자치 실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 교육감은 "요즘 전북교육감으로 지내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저마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나라에게 자존감이 가장 높은 전북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당당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연구책임자 송문호)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가상재화회 이해 과성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섰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발달로 생성되고 활성화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영역의 연

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영역 입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소를 기반으로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 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지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b>모 집</b>	<b>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b>	<b>상 담</b>
<b>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b>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경쟁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b>&lt; 각 지역별 모집 &gt; &lt; 누구나 학습가능함 &gt;</b>		
<b>학교별</b>	<b>주요과정</b>	<b>지역별(자유선택)</b>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b>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b> <b>※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b>		

#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되는 고향 청소년 위한 지원

###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전북 방문해 고향사랑 장학금 전달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회장 김영운)이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는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김영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를 만나 '2021 고향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세계호남향우회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호남지역 수해복구 성금 1억 원과 고향사랑 장학금(84명), 4,200만 원을 기탁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바 있다.

올해에도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회장단이 입국, 정해진 격리기간을 마치고, 전북도를 방문했다.

세계호남향우회는 고향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마다 미국과 중국에 청소년들을 초청해 대학 및 기업 탐방 등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호남향우회와의 교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향을 방문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매년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도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전북·전남·광주에서 약 400여 명의 전세계 호남인들이 고향을 방문 개최해 왔던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관계로 4월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유호상 기자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김영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를 만나 '2021 고향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전폭 지원 '한뫼'

### 전북도-도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업무협약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한 세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런 협약을 중소기업부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업 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이에 발맞춰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협약기관별 역할과 자금 지원 대상 평가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도내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용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등이다.

연간 150억 원 용자 한도 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용자 지원된다.

이월러, 시중 12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3.78% 고정금리로 용자 지원하

고, 전북도가 대출이자 3.18%를 지원해 기업은 0.6%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임재욱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역량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711-202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페이스북 10주년 기념 이벤트 참여하세요"

전북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jonbuk.kr)이 페이지 개설 10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다.

전북도 페이스북 접속 후 전북도 페이스북에 비라는 점을 '10글자'를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9일 전북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도민과의 생생한 소통을 위해 지난 2011년 개설한 전북도 페이스북은 다양한 정책·관광·문화·일상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상에서 '소통 강자'로 이름을 떨쳐왔다. /유호상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